강진,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서 화합 다져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공연과 체험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강진에서 펼쳐졌다.

강진군은 지난 14일 강진국민체육센터 제2실내체육관에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이 주최하고 강진군가족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다국적 음식 체험을 비롯해 네일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 베트남 전통춤 '남궁산하'와 강진군가족센터의 태권무 공연이 펼쳐져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선사했다.

기념식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가족 지원에 기여한 가족센터 직원 2명과 다문화 모범가정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이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가족 명랑운동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뛰고 응원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가족과 이웃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움을 나누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다양한 문화를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함께 어울리고 웃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가 서로 존중받으며 어우러지는 포용적인 지역 공동체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전운재 기자



2026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 행사 모습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의회, 농어촌 소멸위기 지원 기준 개선 촉구

무안군의회(의장 임윤택)는 17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농어촌지역 소멸위기를 반영한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남악·오룡 신도시 조성으로 군 전체 인구가 증가하면서 읍·면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멸위기가 평균 지표에 가려져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 첫 지정과 올해 재지정에서 모두 제외됐으며, 농어촌 지원 확대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군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금 차등 지급에서도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인접 농어촌지역과의 지원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여성예비군, 순천 안보현장 견학 실시



목포시 여성예비군 대원들이 순천 안보현장을 견학하고 있다.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 여성예비군 대원 23명이 지난 11월 14일 순천 일원에서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호국의 역사 현장을 둘러보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지역 방위와 여성예비군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성휘 목포시장은 견학에 앞서 출발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환송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예비군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원들은 호남호국기념관을 관람한 뒤 정유재란 역사체험장과 순천왜성을 방문했다. 각 현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헌신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며 안보의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견학이 호국의 의미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성예비군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제45기 노인대학 졸업식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지난 3월부터 이어온 한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함평군은 17일 "'제45기 함평군 노인대학 졸업식'이 이날 오전 함평군노인회 대강당에서 졸업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남오 함평군수를 비롯해 조용무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장과 노인회 임원, 졸업생과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맺은 어르신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행사는 노인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학사보고, 졸업증서 및 표창 수여, 졸업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근상은 서복남 씨를 비롯한 10명이, 공로상은 김봉진 씨와 유복남 씨가 각각 수상해 그동안의 성실한 참여와 노고를 인정받았다.

지난 3월 개강한 제45기 함평군 노인대학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됐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함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확산 방지 총력

영암군은 지난 13일 군서면 한 농가에서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가 발견됨에 따라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해당 바이러스는 토마토와 고추, 파프리카 등 가지과 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가검역 대상 병해충으로, 감염되면 잎과 과실에 변형과 갈색 반점 등이 나타나 상품성과 수확량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치료제가 없고 작업자의 손과 장갑, 농기구 등을 통한 접촉만으로도 쉽게 전염돼 초기 차단 방역이 중요하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발견 직후 방제대책반을 가동하고 가지과 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과 현장 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방역 매뉴얼 보급과 문자 안내, 1대1 전담관 지정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가에 재배시설 내·외부인 출입 통제, 작업 전후 손과 농기구 소독, 농장 간 농자재와 출하 상자 공동 사용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기철 기자

신안, 흑산권 11개 섬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2027년에도 흑산권 11개 면섬의 일반인 여객선 운임 50%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흑산도와 홍도 등 11개 섬 방문객을 대상으로 평일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연중 운임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군은 이를 위해 2027년 본예산안에 80억 원을 편성했으며, 군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섬 방문과 체류를 유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